

01. 하느님을 향한 갈망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는 고향, 즉 영원한 조국에 대한 희망을 향한 행복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이지만, 영원을 갈망하며, 하느님을 갈망한다. 세상과 인간을 통해 우주의 기원이자 종말이며 최고의 선으로서 확실히 알 수 있는 하느님을 말이다.

1. 하느님을 향한 갈망: 인간은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이며, 완전한 행복을 갈망하고 하느님을 갈망한다

“사람은 새가 날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19세기 러시아의 한 문인이 썼다. 모든 사람은 행복, 즉 자신의 선을 추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 간다. 우리를 완성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인간적 선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복은 언제나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 단지 때로 좋은 것을 얻은 후 그것에 익숙해지기 때문만이 아니라(우리가 갖고 싶어 했던 것을 얻었을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피조물도 인간의 행복에 대한 갈망을 채워줄 수 없으며, 게다가 피조물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몸과 영혼이 하나로 결합된 인간, 즉 인격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적 차원은 우리가 관계 맺는 구체적인 현실들—사람, 제도, 물질적 재화, 우리의 성장을 돕는 도구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준다.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식 능력이나 질문을 소진시키거나 고갈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알거나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능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만족시켜 줄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은 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향해 이끌리는 것을 느낀다.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주변의 문제와 현실을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며 경험을 쌓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 우울해진다. 우리는 **충만함에 대한 갈망**을 느낀다. 이 모든 것은 위대함의 징표이며,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일부를 이루는 구체적인 현실을 초월하는 무한한 무언가 있다는 사실의 증거다.

그러나 세상은 덧없는 것이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모두 덧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룬 성취, 우리가 누리는 재산...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항상 곁에 두고 싶어 한다. 그것들이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고, 그 선물과 장점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며,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의식의 깊은 곳에서는 그것들이 일시적이며,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때로는 잠시 동안만 줄 수 있는 행복을 약속한다는 것을 감지한다. “모든 것은 약속들 사이에 숨겨진, 그 자체의 유한함이라는 인장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사물들의 공포와 수치심은 바로 유한하다는 데 있으며, 그 수치스러운 상처를 가리고 순진한 이들을 속이기 위해, 그것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위장하기 때문이다”¹¹¹.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닌 그 그림자는 우리를 깊이 건드리며, 잘 생각해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렇지 않기를, 삶과 충만함에 대한 우리의 갈망에 탈출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끈다. 이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며, 인간의 마음속에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이 지닌 ‘초월성에 대한 갈망’을 가리키는 두 가지 유형의 인간적 갈망을 발견했다. 선에 대한 다양한 초월적 경험 앞에서, *충만함*(존재, 진리, 선함, 아름다움, 사랑)에 대한 *갈망*이 깨어난다. 그리고 악, 즉 그러한 선의 상실에 대한 다양한 경험 앞에서, *구원*(영속, 정직, 정의, 평화)에 대한 *갈망*이 깨어난다. 이들은 저 너머에 대한 향수를 남기는 초월적 경험들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새가 날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지만, 경험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완전하지 않으며, 삶이 결코 온전히 만족스럽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저 너머에 남아, 늘 엿보이지만 결코 얻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는 불안과 불만족, 행복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은밀한 희망, 즉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사랑의 꿈이 충족되는 집, 영원한 고향에 대한 희망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세속적이지만 영원을 갈망한다.

이 소망은 그 자체로 자연적 종교성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하느님을 가리키는 ‘표지’와 같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경험은 그를 모든 현실의 기초가 되는 존재, 즉 성 토마스가 신에 이르는 유명한 다섯 가지 길(참조: “*신학대전*” I, q.2, a.3)을 결론지으며 말한 “모두가 신이라 부르는 그분”을 저절로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상식, 즉 모든 인간이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휘하는 철학적 사고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질서에 대한 경탄, 생명의 무상한 선물에 대한 놀라움, 타인의 사랑을 느끼는 기쁨 등은 이 모든 것이 비롯된 ‘신비’를 생각하게 한다. 또한 자기 성찰 능력, 문화적·기술적 진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성 인식과 같은 인간 영성의 다양한 차원들은, 다른 육체적 존재들과 달리 인간이 나머지 물질적 우주를 초월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인간의 자질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더 높고 초월적인 영적 존재를 가리킨다.

종교적 현상은 루트비히 포이어바흐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간의 주관성과 행복에 대한 욕망의 투영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자발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이는 신을 부정하고 문화 및 사회·시민 생활에서 신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서구 세계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거대한 종교적·실존적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함없이 남아있다. 이는 종교가 인류 역사의 “유아기” 단계에 국한되어 있으며, 지식의 진보와 함께 사라질 운명이라는 생각을 반박해 준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일부 철학자와 신학자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에게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소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되는 은총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 두셨다는 생각에 이르게 했다. 예를 들어, 테르툴리아누스는 당시 이교도들이 자연스럽게 “신은 위대하다”거나 “신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인간의 영혼이 어떤 식으로든 기독교 신앙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의 “변증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Anima naturaliter christiana*» (17,6). 성 토마스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과 영혼의 무한한 개방성을 고려하여, 인간은 “하느님을 뵈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했다(“*이교도 반박*”, 제 3 권, 제 57 장, 4 항). 그러나 경험은 이 소망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오직 하느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신비에서 나오시며, 친히 인간을 만나러 오셔서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실 때에만 이 소망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계시의 목적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제 27 항에서 이러한 생각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인간은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진리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2. 신에 대한 이성적 인식

인간의 이성은 창조된 세계를 출발점으로 하여 두 가지 경로, 즉 물질적 피조물(우주론적 경로)과 인간 존재(인류학적 경로)를 통해 하느님께 다가감으로써 그분의 존재를 알 수 있다.

하느님의 존재를 향한 이러한 길들은 수학이나 자연과학이 이 용어에 부여하는 의미에서 엄밀히 말해 “증거”는 아니며, 오히려 수렴하는 철학적 논증들로, 이를 고려하는 이의 소양과 성찰의 정도에 따라 그 설득력이 더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다(참조: *교리서*, 31). 또한 실험과학(물리학, 생물학 등)의 의미에서 “증거”가 될 수도 없는데, 이는 하느님이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해질녘의 노을이나 모래폭풍을 관찰하여 결론을 도출하듯이, 하느님을 관찰할 수 없다.

우주론적 증명은 물질적 피조물에서 출발한다. 가장 잘 알려진 정립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기인한다. 바로 그가 제시한 유명한 ‘다섯 가지 논증’이다. 이를 간결하고 단순화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증은 우리가 자연에서 관찰하는 인과 관계(원인-결과)의 사슬이 과거로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즉, 기원이 있어야 하며, 제 1 동인과 제 1 원인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길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사물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모든 현실에 대해 그런 식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길은 우리가 아는 모든 현실이 선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추론한다; 마지막(다섯 번째) 길은 세상 현상 속에 존재하는 질서와 목적성, 즉 현상을 규율하는 법칙들이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이러한 법칙들을 설명하며 동시에 만물의 최종 원인(final cause)이 되는 질서를 부여하는 지성의 존재를 결론짓는다. (참조: “신학대전”, I, q.2).

우주 분석에서 출발하는 경로들 외에도, 인류학적 성격을 띤 다른 경로들이 존재한다. 이 경로들에서 성찰은 인간, 즉 인격체라는 현실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경로들은 각각 따로따로 고립되어 고려될 때보다 서로 수렴하는 것으로 이해될 때 더 큰 설득력을 갖는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첫째, 사고 능력, 내면성, 자유로 특징지어지는 인간의 영적 성향은 우주 내의 그 어떤 다른 현실에도 근거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복을 갈망하지만 충족되지 못한 인간은,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우리는 인간 본성 속에서 타인과의 연대와 자선에 대한 도덕적 감각을 발견하는데, 이는 인간이 타인에게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 안에서 자아와 이기적인 이익을 초월하려는 소명을 인식하게 한다. 사람은 왜 자신이 여기에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왜 인간은 공리주의적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지, 왜 어떤 것은 자신의 존엄성에 부합하고 다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지, 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반대로 정의롭게 행동했을 때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는지; 왜 해질녘의 아름다움, 별이 가득한 하늘, 혹은 숭고한 예술 작품 앞에서 황홀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을 우주의 맹목적인 작용이나 물질적 상호작용의 비인격적 산물로 합리적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그분께서 누구이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일각을 심어 주신, 무한히 선하고 아름답고 공정한 존재의 표징이 아니겠는가? 이 두 번째 선택이 더 논리적이고 납득이 간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이에게는 명쾌한 논리를 제시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진리와 아름다움에 대한 개방성, 도덕적 선에 대한 감각, 자유와 양심의 목소리, 무한과 행복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인간은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자문한다. 이 모든 것에서 그의 영적 영혼의 징표가 드러난다. “단순히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로서 그 안에 지니고 있는 ‘영원의 씨앗’”, 즉 그의 영혼은 오직 하느님에게서만 기원을 가질 수 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33. 인용문은 “가우디움 에트 스페스” 18 항에서 발췌).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다양한 철학적 논증들은 반드시 그분에 대한 믿음을 낳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러한 믿음이 합리적임을 보장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그것들은 하느님에 대해 거의 말해주지 않으며, 종종 사람들에게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닌 다른 신념들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문화에서 자연의 과정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지식은 일부 우주론적 논증에 반박할 수 있다. 비록 우주가 현상 속에서 일정한 질서, 아름다움, 목적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상당한 정도의 무질서, 혼돈, 비극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현상이 우연적(우연, 혼돈)이고 다른 현상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는 우주적 비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 더 발달한 동물에 불과하며, 그 행동이 필연적인 충동에 의해 조절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영적 삶의 중심(마음, 양심, 영혼)을 뇌 기관과 신경 과정의 신체적 실체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도덕성이나 영의 초월성을 다루는 개인적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는, 무질서와 우연이 우주 전체의 목적(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논증으로 답할 수 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자연법칙 속에서 “그토록 우월한 이성이 드러나기에, 인간의 사고와 질서 정립의 모든 합리성은 이에 비하면 전혀 미미한 반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3].

마찬가지로, 이성과 인간 현상학의 차원에서, 인격의 자기 초월성, 선택에 작용하는 자유 의지(비록 그것이 자연에 의존하고 어느 정도 조건에 얽매어 있더라도), 그리고 마음을 뇌로 환원할 수 없음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교리문답 요약본이 “세계와 인간 존재를 출발점으로 하여, 인간은 오로지 이성만으로 우주의 기원이자 종말이며 최상의 선인 하느님을 확실히 알 수 있다”(n. 3)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의 복잡한 측면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는 상당한 논쟁의 여지를 남기기에, 이성적 경로를 통한 하느님에 대한 접근이 종종 실제로는 설득력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3. 초월적 존재에 대한 현대인과 사회의 특징

세계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태도와 삶에 대한 종교적 관점은 세계 각지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말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초월성에 대한 언급은 -비록 매우 다양한 종교적·문화적 형태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삶의 중요한 측면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서구, 특히 유럽은 예외로 꼽아야 한다. 이곳에서는 일련의 역사적·문화적 요인들이 신과 역사적으로 서구에서 지배적인 종교였던 기독교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 또는 무관심의 태도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변화를 종교 사회학자 피터 버거의 말로 요약하자면,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은 그 ‘타당성 구조’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기만 해도 가톨릭 신자가 될 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기만 해도 신자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광범위한 계층에게 그분은 더 이상 기대되거나 갈망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하게 만드는 현실이며, 이에 대해 굳이 입장을 밝힐 노력조차 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4].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다양하다. 한편으로는 지난 두 세기 동안 인류에게 수많은 혜택을 안겨준 거대한 과학적·기술적 성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과학만을 합리적인 지식의 유일한 유효한 형태로 간주하는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을 불러일으켰다. 오직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 즉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진실이라는 세계관이 널리 퍼졌다. 이는 “이성의 지평”을 축소시키는데, 왜냐하면 비과학적인 지식의 형태(예를 들어, 타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과소평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도구만을 찾는 데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창조된 세상의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고려하는 것은 과학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이 창조물에 두신 경이로움을 경탄하게 한다. 오늘날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에 담긴 완전함을 발견하며 초월성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

이전 내용과 연결되는 두 번째 측면은 사회의 세속화, 즉 이전에는 종교적 개념, 신념, 제도와 관련되었던 많은 현실들이 그러한 차원을 상실하고 순수하게 인간적, 사회적, 시민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과정이다. 이 측면은 앞서 언급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과학적 진보 덕분에 과거에는 하느님의 뜻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던 많은 자연 현상(건강, 생명 과정, 인문과학 분야 등)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대에는 전염병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벌로 이해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고 규명할 수 있는 위생 상태나 생활 조건 등의 결과로 간주된다. 그 자체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더 나은 이해는 긍정적인 것이며, 또한 신의 작용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신은 자연 현상의 또 다른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다른 차원에 계신다. 그분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들, 즉 삶의 의미, 각자의 최종적 운명, 기쁨과 고통 등에 대한 답을 주신다. 과학은 이 차원의 설명에 이르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더 깊은 질문을 던질 때면 쉽게 하느님이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는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현대 서구 문화에서 신을 향한 지향성이 약화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집단의 사고방식에 깊이 스며든 개인주의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계몽주의 시대(18세기)부터 문화를 특징지었던 해방 과정의 산물 중 하나이다. 그 과정은 앞서 언급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다. 종교적 또는 그 밖의 구실을 내세워 인간을 ‘후견 하에’ 두거나, 명백하지 않은 강요된 교리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또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 즉 구속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널리 퍼뜨리기도 했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게 사는 것”,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까?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를 실용주의적으로 대하게 하며, 개인의 자발성을 옹호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 오직 만족을 주는 관계만이 허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느님과의 진지한 관계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이기심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는 평화와 평온, 안녕을 가져다주고 타협을 요구하지 않는 한에서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주의적 태도는 내용과 제도가 빈약한 가벼운 형태의 종교성을 낳게 되는데, 이는 주관주의와 감성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작용하며 개인의 필요에 따라 쉽게 변하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 일부 매우 ‘개인화’ 가능한 동양적 수행 방식에 대한 선호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

현재 서구사회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을 묘사하기 위해 다른 특징들을 더할 수도 있다. 새로움과 진보에 대한 숭배, 타인과 강렬한 감정을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 일하는 방식, 대인관계, 휴식의 방식 등을 규정하는 기술의 우세와 같은 특성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초월적 현실과 기독교의 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서구사회는 오랜 평화와 물질적 발전의 시기를 겪었으며, 더욱 참여적인 사회가 되었고, 이러한 유익한 과정에 모든 구성원을 포함시키려 노력해 왔다. 이 모든 것에는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이들이 “하느님”이라는 주제를 회피하며, 드물지 않게 무관심이나 거부감을 보인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초월적인 것에 저항하는 사회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삶으로 증언할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증언과 말씀: 두 가지 모두 필요하지만, 증언이 우선이다. 서두에서 우리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새는 날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점을 상기했다. 행복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성체성사 안에서 전해지는 하느님의 사랑보다 더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등을 돌린 사회에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가치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과 행복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만족이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족은 긍정적인 흔적을 남기고, 영혼을 평온하게 하며, 사람을 더 활동적이고 관대하게 만듭니다. 반면 다른 만족은 초기의 빛이 사라진 후, 불러일으켰던 기대를 저버리는 듯하여, 그 뒤를 따라 쓴맛, 불만족, 혹은 공허감을 남깁니다.”^[5] .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 믿거나, 삶의 실용주의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거나, 무엇에도 얽매이고 싶어하지 않는 개인주의자의 행복은 일시적이며, “그때그때만 지속”되고, 더 이상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주 새로워져야 한다. 이는 종종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 못하는 행복이다. 반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은 다른 삶을 살며, 또한 다른 종류의 행복을 누린다. 그 행복은 더 깊고, 더 오래 지속되며, 그들 자신과 타인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디오그네토에게 보낸 서신*(5장 및 6장)의 유명한 구절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곳이나, 사용하는 언어나, 관습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운명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도시나 이방인의 도시에 살며, 옷차림은 물론 삶의 모든 방식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관습을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의 판단에 놀랍고도 경이로운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그들은 자신의 조국에 살지만 이방인처럼 지내며, 모든 일에 시민으로서 참여하지만 모든 것을 이방인처럼 견뎌낸다. 모든 낯선 땅이 그들에게는 조국이지만, 모든 조국에서는 낯선 땅에 있는 것처럼 지낸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혼하여 자녀를 낳지만, 잉태한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식탁은 함께하지만 침대는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은 육신 속에 살지만, 육신에 따라 살지는 않는다. 땅 위에 살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정해진 법을 따르되, 그들의 삶으로 그 법을 뛰어넘는다. 모두를 사랑하지만, 모두에게 쫓긴다. 알지도 못한 채 정죄 받는다. 죽임을 당하지만, 그로 인해 생명을 얻는다. 가난하지만 많은 이를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풍성하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 되며, 명예를 훼손당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의로움을 증언한다. 그들은 저주를 받지만, 축복하며, 치욕을 당하지만, 그 대가로 영광을 돌려준다. 그들은 선을 행하지만, 악인처럼 처벌받으며, 사형에 처해져도 마치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뻐한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처럼 대적하고 이방인들은 그들을 박해하지만, 정작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조차 그 대적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간단히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혼이 육신에 있는 것과 같다.»

기본 참고 문헌: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49 항.
- 프란치스코, “생태 위기의 인간적 뿌리”, 회칙 “*라우다토 시*”.
- 베네딕토 16 세, “신앙의 해. 하느님을 향한 갈망”, 일반 알현, 2012 년 11 월 7 일.
- 베네딕토 16 세, “신앙의 해. 하느님을 알게 하는 길들”, 일반 알현, 2012 년 11 월 14 일.